

사랑의 교복... “공부 잘 할게요”



부산 두송복지관장 지현 스님이 2월 28일 저소득층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새학기에 입을 교복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이 2월 28일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신학기 교복을 전달했다.

이날 다송중학교에 입학하는 광진이를 비롯한 17명의 중학생 새내기들은 새 교복을 받는다는 설렘으로 전달식에 참석했다. 파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들 아버지로 둔 쌍둥이 형제인 하산, 후선 형제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방 수줍은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물한 사람들은 인근 주민과 관공사 신도들을 비롯한 후원자들. 살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 세대가 밀집된 두송

두송복지관 저소득 가정에 전달 분양한 복복지 1년 모아 보시행

복지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살림이지만 1년 동안 모은 동전들로 참다운 보시의 의미를 일깨워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했다.

매년 두송복지관에서 분양하는 복복지 저금통을 가득 채워 온 이들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아 이번 교복 지원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심사반으로 동참하는

주민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비클럽 과정·다대정 김종광 대표도 이날 8명의 교복을 후원했다.

학생들은 이웃 주민들의 사랑이 담긴 교복을 입어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복에 담긴 이웃의 사랑과 두송복지관장 지현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들으며 마음까지 푸근해졌다.

새 교복을 입은 하산은 “기분이 너무 좋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네티아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광진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교복 마련에 걱정이 많았는데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제법 어른스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복을 선물 받는 조카와 함께 전달식에 참가한 이귀숙(사직동) 씨는 “교복 장만이 큰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지현 스님은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알을 깨는 것과 같다”며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을 바꿔 보다 높고 넓은 시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며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님, 이웃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송복지관의 교복지원사업은 2003년 1월 시작된 ‘작은 사랑 큰 기쁨-1일 100원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시작했다. 연초에 복복지 저금통 1000개를 분양해, 매년 12월 후원금을 정산한다. 이렇게 모인 성금으로 지난해에는 12명의 학생에게 동복과 하복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직지사 교구 신도회 활성화 모색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주지 성웅)는 2월 27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8교구 신도회 2005년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병무 신도회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도회는 이날 김천, 구미, 예천 등 교구 본사 산하 지역회장, 본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회칙 개정과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한병무 회장은 “3월 중 신도회 임원단을 구성하고 직지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신도조직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단위 사찰은 본사 차원의 신도교육에 참여하고, 분기별 임원회의를 통해 임원들의 수행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부산 요관음사 분원장 임명 총출

당대의 선지식 황국 스님이 주석했던 요관음사가 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끄럽다.

지난해 12월 23일 선학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분원장 혜오(前 표충사 주지) 스님이 3월 2일 새벽 4시 10분경, 요관음사로 진입했다.

요관음사 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 12월 14일 향곡문도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혜오 스님을 추천하고 12월 23일자로 임명장을 발부했으나, 前 분원장 혜원 스님이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본격화했다.

양측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펴며, 몇 차례 사찰 진입을 시도하고 막는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부상을 입는 등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혜오 스님을 반대하는 신도들은 집회 신고를 내고 사찰 길목에서 혜오 스님 분원장 임명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반복성 탈피 다양화 대중화 때야

위덕대 ‘불교축제’ 주제로 심포지엄

위덕대는 2월 25일 교내 공덕관 4층 지역혁신센터에서 ‘경주문화콘텐츠·불교축제’를 주제로 2005 인문콘텐츠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1부는 △경상북도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발표:경북도청 황인동 문화예술과장) △ESODO의 CT산업과 문화원형, 경주 사례를 통한 Solution과 Application(발표:ESODO 김진희 대표), 2부는 △한류의 중심 ‘겨울연가’의 문화콘텐츠, 내러티브의 기호학적 분석(한국외대 백승국 교수) △불교 축제의 새 모델 연등축제-지역 축제의 대안 모색(호서대 안이영노 교수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경주 불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기획과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좌장인 인문콘텐츠학회 부회장 김기덕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한편, 지역불교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연등축제의 활성화를 제시한 안이영노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통등이 갖는 국제적 보편성이 큰데, 전통등 연구 및 제작의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연등축제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의 반복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조용수 기자

대구 경북 108 여성불자회 창립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자 여성지도자들이 ‘대구·경북 108여성불자회(회장 박소현)’를 3월 8일 창립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을 지역사회에 회향하기 위해 창립된 108 여성불자회는 이날 대구 제이호텔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여성불교예술품인 박소현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조직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8여성불자회는 앞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봉사활동과 여성불교회관 건립 등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영주암 어린이집 우수 보육시설

(사)불교도 산하 영주암어린이집(원장 변신)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2004년도 보육시설 인준평가에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인정기간은 2004년 12월~2006년 11월.

더구나 이번 선정은 1998년도와 2002년에 이어 세 번째 선정이어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법산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 부처님의 팔정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일군 성과”라며 “미래의 새싹을 귀중하게 여기시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참다운 전인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755-5500 천미희 기자

관음선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재)관음선행장학회(대표 지현·이하 장학회)는 2월 22일 조계종립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관음선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장학회는 이날 송광사 올원(3명), 강원(5명), 동국대 대학원(2명), 이화여대 대학원, 부산대 의과대학, 경의대 한의학과, 동아대 대학원, 순천대 대학원 등 20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립 방장 보성 스님이 총재직을 맡고 있는 장학회는 1991년 정재선 김소연 등 10여 명의 보살들이 운영해오던 것을 2004년부터 송광사 올원장 지현 스님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051)294-9300 천미희 기자

지역불자 마음 모으니 ‘신나는 법회’



구미지역 6개 수행단체들은 3월 2일 첫 연합법회를 열고 지역불교발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미, 6개 수행단체 첫 연합법회

2005년 구미불교 수행단체들이 힘을 모으면서 지역불교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구미불교대학 큰법당에서 화엄담사 주지 승오 스님을 법사로 수행단체들이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등 구미 지역 불교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미수행단체 연합법회에 동참한 단체는

6개. 구미불교거사법회(회장 김홍배)가 주축이 했고 구미시정불자회(회장 신영근), 구미교사불자회(회장 최한규), 구미경찰불자회(회장 구홍모), 구미운불련(회장 정전섭), 구미연화회(회장 이미정)에서 사부대중 150여명이 법회에 참석했다. 법어, 발원문 등의 순서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구미 지역 수행단체가 함께 봉행한 첫 법회라는 점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승오 스님은 “구미 수행단체들이 서로 화합하여 부처님 법을 펴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값진 일”이라며 “앞으로 수행단체들이 힘을 모아 구미 시민들의 마음 발을 가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법문했다.

법회를 주관한 구미불교거사법회 김홍배 회장은 “앞으로 분기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성지순례, 구미 시민을 위한 큰스님 초청 대법회, 사월 초파일 합동 행사, 청소년포교, 사회봉사 등을 꾸준히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법회 후 상견례와 차담 시간을 통해 향후 구미지역 불교 발전을 다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부산 보훈병원 법당 증축 개원

부산 보훈병원 법당이 3월 9일 증축 개원한다.

2000년 1월 개원한 5평 남짓의 법당이 14평 규모로 50-60명이 한꺼번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날 오전 11시 정관 스님을 증명 법사로 부처님 이운법회를 봉행한다.

이처럼 새로운 법당이 마련된 데에는 그동안 보훈병원 내에서 꾸준히 활동을 벌여온 부산불교교육대학 동문회, 부산 보훈병원관음회 봉사자들의 몫이 컸다. 또 봉사자들이 활동 뒤에는 매달 후원금을 보내준 정관스님의 뒷바라지도 큰 힘이 됐다. 2년 전 신년 법회에 참석했던 정관 스님은 법당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왔다. 스님의 그러한 관심은 병원 포교 활동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됐다.

새 법당이 개원으로 그동안 법당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휠체어 환자들의 불편도 말끔히

해소됐다. 또 부산 보훈병원내 불교봉사자들의 활동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 보훈병원관음회(회장 윤재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봉사자들을 구성,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활동 중인 불교봉사자는 약 70여 명. 목욕봉사, 열불봉사, 호스피스, 상담, 안내 등의 분야로 나뉘며 매주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목욕 봉사는 불자 봉사자들의 꼼꼼하고 친절함 봉사덕분에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특정 요청이 늘면서 열불 봉사자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앞으로 새 법당에는 상근자를 두고 법당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도와 수행을 돕는다. (051)601-6347 천미희 기자

불교봉사자 70여명 활동 호스피스·상담·안내 등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사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사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사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3월 중 수시모집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25-6798167 / 팩스: 25-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02-511-2026~7, 1080 / 팩스: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불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해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재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 설립,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鎭,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원장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錫,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 11일-11월 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瑞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 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외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